

KORDI ISSUE PAPER



2020-4

발행일 2020.12.24. / 발행인 강익구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신노년세대 유형화분석: 다채널배열분석을 중심으로¹⁾

김 수 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
(suelynn@kordi.or.kr)

요약

- 본고는 신노년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입에 대응하여, 신노년세대의 특성과 내적 격차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고령화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다채널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로는 교육수준, 직업지위, 건강수준, 소득수준을 활용함. 그 결과, 신노년세대는 6개 집단으로 유형화 되었으며 이는 기존노인세대와 상이하였음
- 신노년세대 내 다양한 집단의 존재는 노년기 일자리 및 활동에 대한 분화된 욕구를 의미하는 만큼,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이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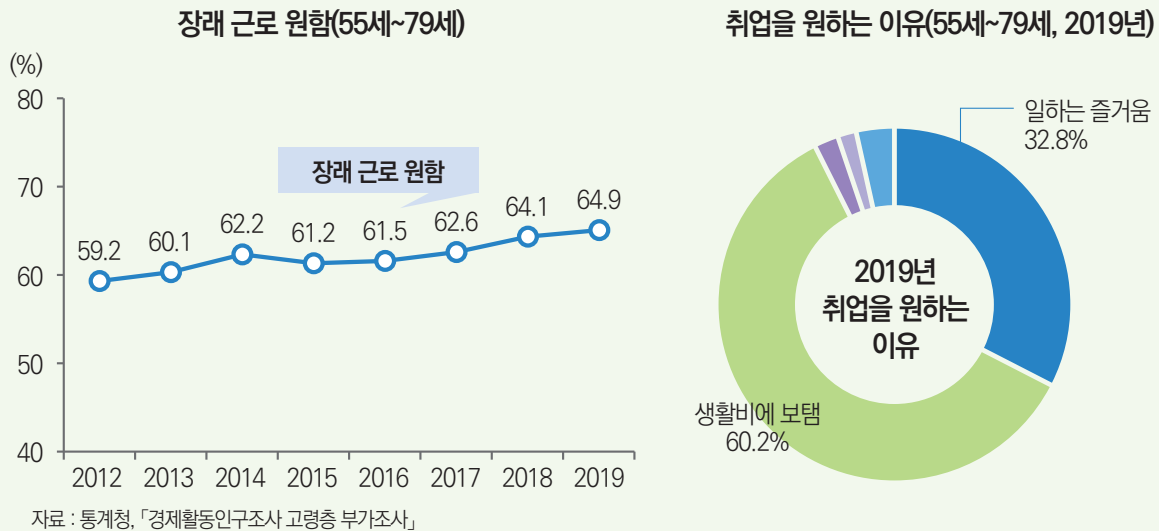
1. 배경 및 목적

- ▷ 신노년세대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를 일컫는 말로써 대략 713만명 정도로 추정. 2010년 기준 전체 인구비율 중 14.6%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베이비부머세대는 57세에서 65세가 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준비 중일 것으로 예상됨
- ▷ 대부분의 연구에서 동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를 누렸으며, 한국 사회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린 세대라고 평가됨(정경희 외, 2010; 안서연, 백학영 2019). 동시에 노인과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는 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기도 하며(정해식 외 2014),

1) 본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년 연구과제로 추진한 김수린, 배지영, 안서연, 허선영, 김혜인(2020)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연구내용 일부를 요약 정리함.

노후준비는 미비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최웅철, 2018)로 알려져 있음.

- ▷ 실제 신노년세대를 포함한 고령자(55~79세)의 장래근로 희망율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배경에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주를 이룸
- ▷ 이 같은 상황에서 신노년세대의 건강상태, 활동의향, 생애경력 등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층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35년 약 158만명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김수린 외, 2019)



[그림 1] 고령자 장래근로 희망 여부 및 이유

*출처: 통계청(2019). 2019 고령자통계

- ▷ 한편, 신노년세대는 그 규모가 큰 만큼 집단 내 이질성도 간과 할 수 없음. 계층의 고착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세대로(정경희 외, 2011), 노년기 이전의 격차가 노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 이 같은 집단 내 차이가 노년기 일자리 등 활동 욕구의 다변화를 시사하는 만큼, 기존노인세대를 고려하여 설계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 역시 불가피한 상황임.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신노년세대의 특성과 그에 따른 다양성이 어떠한지를 검토 하는 것임
- ▷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김수린 외 (2019) 연구가 있음. 해당 연구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신노년세대(1955세-1960년생), 노년세대A(1961~1956년생), 노년세대B(1947~1952년생)의 세 코호트별 근로생애와 인적특성과 가구특성에 관해 분석함. 그 결과, 신노년세대는 높은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이 높으며 도시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특성을 지녔음. 근로생애의 경우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으며, 관리직, 사무직, 기능직 비중이 높지만, 주된 일자리 경험 비율이 낮고, 경력이 짧은 특성을 보임. 해당 연구는 신노년세대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긴 하였지만, 생애주기 상 남녀 간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선택에서의 차이가 큰 데 반해, 근로생애 분석에서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신노년세대 내의 격차를 주목하지 않음
- ▷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노년세대 내 내적격차에 집중하여, 특성에 따라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신노년세대의 유형화는 인적자본(학력과 건강), 노동생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른 근로동기 및 욕구를 반영하여 수행함.

2.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및 용어정의

① 신노년세대와 기존노인세대 정의

- ▶ 신노년세대 : 베이비부머세대와 동일한 코호트로, 1955년에서 1963년으로 9개년에 걸친 세대. 고령화패널의 경우 고령자 패널조사의 특성상 1961년생 이전 출생자로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분석대상은 1955년에서 1961년생까지의 7개년도의 출생 코호트임
- ▶ 기존노인세대 : 기존 노인세대는 “신노년 이전세대”로 정의하고, 출생년도 기준 1945년부터 1954년의 10개년에 걸친 출생코호트로 정의. 만약 신노년과 비교하기 위한 기존노인세대를 1954년 이하 노인전체로 정의할 경우 노인세대 내의 격차(대략 66세~90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노년세대와 비교하기 부적절함

② 분석자료

- ▶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이하 고령화패널)를 이용해 신노년세대의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활동 욕구를 확인
-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을 기준으로 만 4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격년을 주기로 기본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2018년(7차) 조사까지 공개되었음. 이 자료는 고령자 대상 대규모 조사이며, 조사 대상 표본에 읍·면 지역 거주자와 농어업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노인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우수하다(김수린 외, 2019). 그로 인해 신노년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도 적합한 자료임
- ▶ 분석대상은 신노년 출생년도 기준 1955년에서 61년생까지의 7개년도의 출생 코호트이며, 분석대상 중 1차에서 7차까지 주요 변수에서 결측치 없이 조사된 관측치는 2,421명중 총 981명으로, 전체적으로 소실률은 60% 수준임. 신노년 이전세대는 출생년도 기준 1945년부터 1954년까지의 10개년도의 출생 코호트이며, 분석대상 중 1차에서 7차까지 주요 변수에서 결측치 없이 조사된 관측치는 2,432명 중 1,214명으로 소실률은 대략 50% 정도임

2) 분석방법: 다채널배열분석과 군집분석

- ▶ 신노년세대를 인적자본, 생애근로경험,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해 다채널 배열분석방법(multi-channel sequence analysis)과 군집분석을 사용함. 이 분석방법은 시계열적으로 관찰되는 사건의 배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 배열 간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 Hamming 거리 측정방법(Dynamic Hamming Matching, 이하 DHM)²⁾을 사용하여 배열간 거리값을 구하고, 계산된 거리값에 근거하여 유형화(Cluster analysis)를 하는

2) 사회과학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OM 방법은 배열간 거리값은 모든 배열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일한 배열을 만들도록 하는 전환과정에서의 최소비용으로 정의된다. 또한 동일한 배열을 만들기 위한 전환과정은 “삽입/삭제”, “대체”를 통해서 이뤄진다(조미라, 2017). OM 방법과 관련된 비판은 삭제와 삽입을 통해 개인의 노동계적이 실제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방식만을 사용하는 Hamming 거리 측정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방법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DHM 방법은 삽입/삭제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방법만을 사용하여 거리측정을 하는 방식임(Gabardinho, Ritschard, Müller, & Studer, 2011, p25).

- ▷ 본고에서 유형화를 위한 4개의 채널은 각각 직업지위, 교육수준, 건강, 소득수준임. 첫째 신노년세대의 인적자본 수준으로 개인이 가진 기술숙련도(skill-level)를 측정하기 위한 대체(proxy) 변수로써, 학력수준과 생애노동경력을 사용한다. 직업지위는 8가지 범주로 나뉘었으며, 1) 비경활(노동시장 비참여자), 2) 은퇴, 3)부분은퇴, 4) 고숙련-임금노동자, 5) 중숙련-임금노동자, 6) 저숙련-임금노동자, 7) 자영업, 8)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숙련도에 대한 분류는 OECD(2017)의 분류를 기본적으로 따랐으며, 고령화패널의 직업분류에서 ‘관리자’, ‘(준)전문가’ 직업을 고숙련으로 ‘사무직’,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직업군인’을 중숙련 근로자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 근로자’, ‘판매근로자’, ‘단순노무 종사자’ 는 저숙련 노동자로 분류함³⁾

〈표 1〉 신노년세대 유형화를 위한 4가지 차원 항목

구분	직업지위 (1)	교육수준 (2)	건강 (3)	소득수준 (4)
1	비경활(노동시장 비참여자)	초등	활동에 제한 있음	상
2	은퇴	중등	그렇지 않은 편	중
3	부분은퇴	고등	전혀 지장없음	하
4	임금_고숙련	대학교 이상	-	-
5	임금_중숙련			
6	임금_저숙련			
7	자영업			
8	무급가족종사자			

- ▷ 교육수준은 ‘초등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 ‘초대졸이상’의 4가지 범주로 분류
- ▷ 건강수준의 경우, 먼저 의사의 장애판정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건강과 관련해서 실제로 근로/노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척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령화 패널조사 설문문항 중 “건강상태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함. 이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으며, 본고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를 ‘활동에 제한 있음’으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지장 없다’의 3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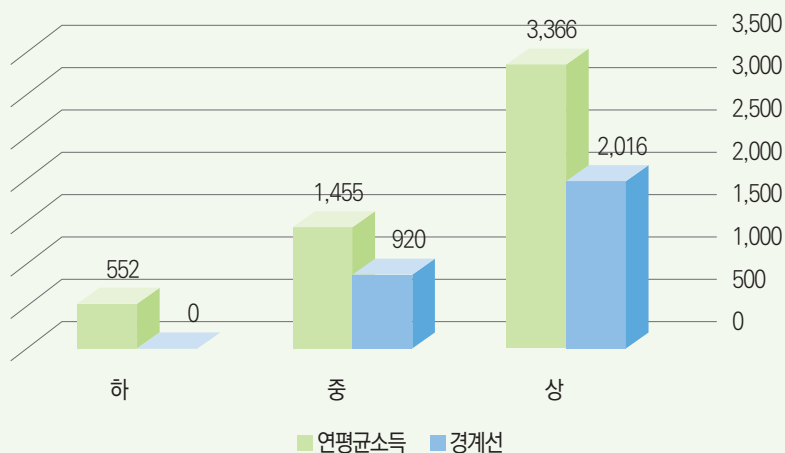
3) 〈표〉 직업분류별 기술숙련도 구분 코드

구분	직업분류	숙련도	구분	직업분류	숙련도
1	관리자	고숙련(high-skilled)	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중숙련 (Middle-skilled)
2	(준)전문가	고숙련(high-skilled)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중숙련 (Middle-skilled)
3	사무직	중숙련 (Middle-skilled)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중숙련 (Middle-skilled)
4	서비스근로자	저숙련 (Low-skilled)	9	단순노무 종사자	저숙련 (Low-skilled)
5	판매근로자	저숙련 (Low-skilled)	10	직업군인	중숙련 (Middle-skilled)

*자료: OECD (2017)의 자료를 저자가 가공함.

▷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은 근로동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노년기의 근로지속희망에 대한 사유가 꼭 경제적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공적연금 수급비율과 수급액이 중년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소득수준과 근로욕구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소득수준은 고령화패널자료의 전체 응답가구를 3분위(상, 중, 하)로 균등하게 나누었으며⁴⁾, 가구총소득을 루트 가구원 수로 조정한 균등화된 값을 사용함. 가구원은 가구의 소득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소득보다 가구소득을 사용함.
- 7차년도(조사년도 2018년)기준 소득 하(下)와 중(中)의 경계선은 약 920만원(소득 하(下)집단의 연간 평균소득은 562만원)이었다. 이 수준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수급 선정 기준(대략 600만원)보다는 높았지만, 상대적빈곤 산정을 위한 빈곤선(1,378만원)보다 낮다. 즉, 소득 하 집단은 빈곤에 속하는 수준임. 소득 중(中)과 상(上)의 경계선은 2,016만원이었는데, 이는 같은 시기 가구중위소득(18년 1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 약 167만원, 연소득 환산시 약 2천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실제로 소득 중(中)집단의 연간 평균 소득은 1,435만원 수준으로, 상대적빈곤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쳤다. 반면 소득 상(上)집단의 연간 평균 소득은 3,366만원 수준으로, 하-중 집단에 비해 중-상 집단 사이의 연간 평균소득 격차가 컸음(각각 873만원, 1,931만원).



[그림 2] 신노년세대 소득수준(상-중-하)

4) 소득수준을 상중하(上中下)로 나눈 이유는 첫째, 고령화 패널이 전체 인구집단을 포괄하지 않고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기준 50%)이라든지, 차상위 빈곤(빈곤선의 1.2배에 해당하는 선)과 같은 빈곤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고, 둘째, 서베이 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국가의 공식적인 빈곤선(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3. 신노년세대 유형화 분석결과

▷ 다중채널배열분석과 유형화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표 2> 신노년세대 기술통계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신노년 이전세대
	100.0	43.2	56.8	100.0
직업지위				
비경활	21.0(14.4)	1.9(2.1)	35.6(23.7)	27.5(19.1)
은퇴	3.7 (14.3)	0.5(9.9)	6.1 (17.6)	7.7(30.7)
부분은퇴	3.2 (7.0)	2.4 (6.6)	3.8 (7.4)	3.9(7.3)
임금_고숙련	6.7 (3.8)	8.7(5.7)	5.2 (2.3)	3.5(0.8)
임금_중숙련	15.0(10.2)	25.5 (16.3)	7.0(5.6)	10.2(3.5)
임금_저숙련	14.1 (16.4)	11.3 (14.2)	16.2 (18.1)	11.5(9.7)
자영업	30.5 (27.0)	49.3(42.7)	16.2 (15.1)	30.8(23.9)
무급가족종사자	5.9 (6.9)	0.5 (2.6)	10.1 (10.2)	4.9(4.9)
합계	100.0(100.0)	100.0(100.0)	100.0(100.0)	100.0(100.0)
학력수준				
초졸이하	14.1	7.6	19.0	35.2
중졸	18.7	14.2	22.1	23.8
고졸	51.0	53.5	49.0	30.9
초대졸이상	16.3	24.8	9.9	1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활동제한 수준				
활동에 제한있음	18.3	17.2	19.0	32.2
그렇지 않은 편	55.9	55.2	56.4	55.4
전혀지장없음	25.9	27.6	24.6	1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소득				
하	8.0	7.1	8.6	23.7
중	28.0	24.5	30.7	40.3
상	64.0	68.4	60.7	3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주1: 직업지위는 1차 값과 7차 값을 함께 제시. 7차 값은 괄호안의 값임. 나머지 변수들의 값은 7차 값을 제시함.

*주2: 소득집단은 대략 하(下)집단이 빈곤, 중(中)집단은 중위소득 미만, 상(上)집단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

▷ 한편, 전체 신노년세대를 유형화한 결과, <표 3>과 같은 6개 적정 군집이 도출⁵⁾되었음

<표 3> 신노년세대 유형별 기술통계

(단위: %)

구분	분류	규모	활동제한경험	소득수준		
				하	중	상
1	(최상위집단)고숙련-대졸-고소득	16.1	17.09	4.4	17.7	77.9
2	(상위집단)중숙련-고졸-중상소득	6.5	10.94	0.0	23.4	76.6
3	(중위집단 I)저숙련-고졸-중상소득	29.6	18.97	7.2	27.2	65.5
4	(중위집단 II)자영업-고졸-중상소득	14.9	19.18	4.1	24.7	71.2
5	(취약집단)저숙련-중졸-중하소득	18.8	17.39	11.4	32.1	56.5
6	(최취약집단)저숙련-초졸-저소득	14.2	21.58	16.6	41.7	41.7
합계 /평균		100.0	18.25	8.0	28.0	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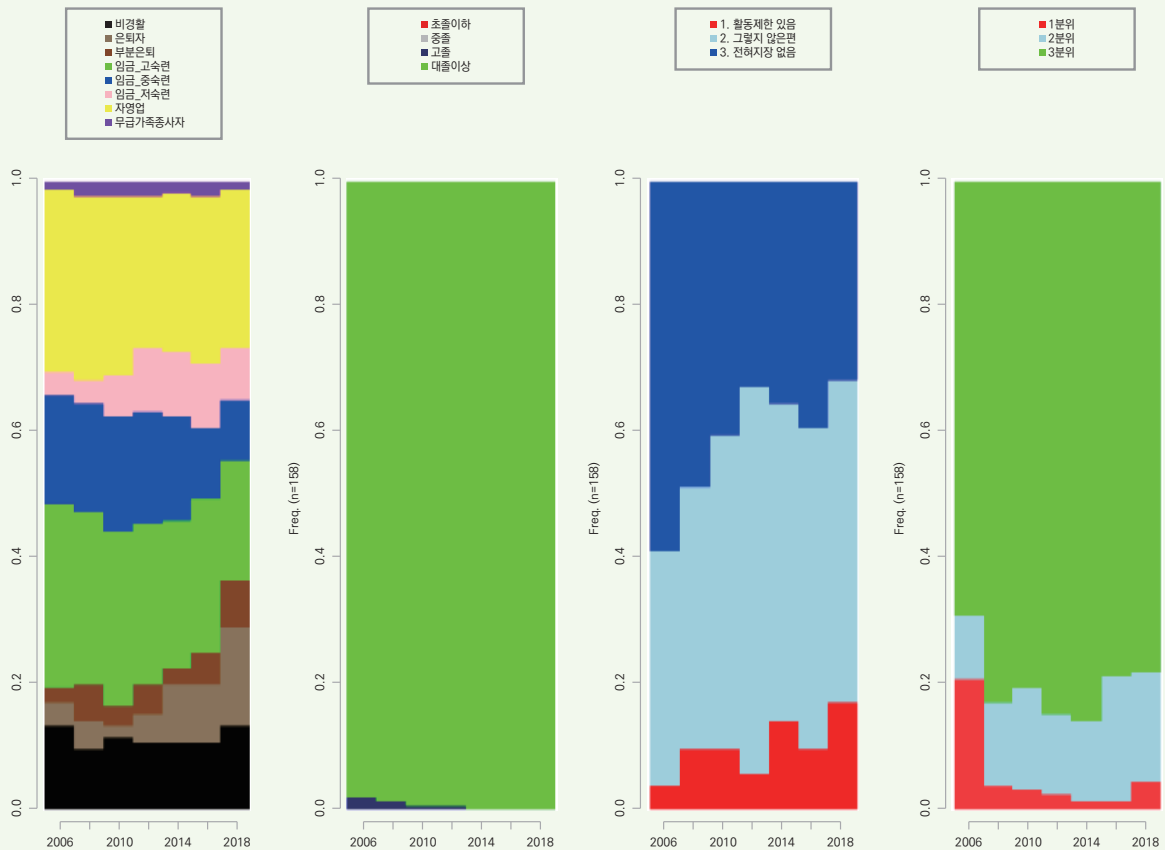
*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 주: 활동제한, 소득분위 비율은 7차 값을 제시함.

- ▷ 먼저 집단1은 최상위집단인 ‘고숙련-대졸-고소득’ 신노년 집단이며, 전체 신노년 중에서 16.1%가 이 유형에 속함. 고숙련 임금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제한이 있다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8년 기준으로 17.1%미만이었으며, 소득수준은 ‘상’의 비율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 ▷ 집단2 상위집단은 ‘중숙련-고졸-중상소득’ 집단으로 전체 신노년 집단 중 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함. 학력수준은 고졸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활동제한 비율이 6.5%로 가장 낮았으며 저소득층인 소득 하 비율은 2018년 기준 0%이었으며 소득 상은 76.6%로 높았음. 그러나 이 집단의 관측치가 작아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 집단3 중위집단 I은 ‘저숙련-고졸-중상소득’ 유형이며, 전체 신노년 집단 중 29.6%를 차지하여 6가지 유형 중 비중이 가장 큼. 신노년 집단 유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비경험 및 은퇴 비율이 높고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대부분 저숙련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며, 2018년 기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대략 19% 정도임. 또한 유형 1에 비해서 ‘중’에 해당하는 소득 비중이 컸으며 소득 하에 해당하는 비율은 7.2%를 차지함.
- ▷ 집단4 중위집단 II는 ‘자영업-고졸-중상소득’이며 전체 신노년 중 14.9%를 차지하였으며, 고졸의 자영업자로 이뤄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활동제한 비율은 19.2% 정도였고, 저소득층인 소득 하 비율은 4%대로 낮았음. 소득 상 비율은 71.2 %로 집단 1에 비해 낮았지만, 높은 편으로 중상소득으로 분류함.
- ▷ 집단5 취약집단은 ‘저숙련-중졸-중하소득’ 집단으로 신노년의 18.8%를 차지하였다. 자영업과 저숙련 임금노동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졸 수준의 학력을 가졌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활동 제한 비율은 2018년 기준 18% 정도였으며, 소득 하 비율은 11.4%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고 소득 상 비율은 56.5%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아서 중하소득으로 분류됨.

5) 각 유형별 이름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예를 들어 신노년세대 유형 1의 (최상위집단)고숙련-대졸-고소득이라는 유형 이름의 경우 6개의 유형 중 상대적으로 해당 유형의 고숙련자 비율이 높아서 붙인 이름이며, 절대적인 분류 기준을 두고 명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둠

- ▷ 마지막 집단6은 가장 열악한 최취약집단으로 ‘저숙련-초졸-저소득’ 집단임. 전체 신노년 집단 중 14.2%를 차지함. 이 집단은 저숙련 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다른 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졸업미만의 학력의 신노년세대로 구성.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제한을 겪는 비율이 2018년 기준 21.6%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높고, 소득 하 비율 또한 16.6%로 가장 높았음⁶⁾.
- ▷ 이상의 분석결과는 기존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유형화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와 상이함⁷⁾



[그림 2] 집단1: (최상위집단)고숙련-대졸-고소득 신노년 (16.1%)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6) 이 집단은 신노년 집단 중 가장 열악한 집단으로 파악된다. 소득 상충하는 고령화 패널 전체 샘플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신노년세대의 경우 고령화 패널 응답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지 않아, 신노년세대는 전체적으로 소득 상에 속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로 인해 가장 열악한 집단인 ‘집단6’에서도 소득 상에 속한 비율이 대략 42% 정도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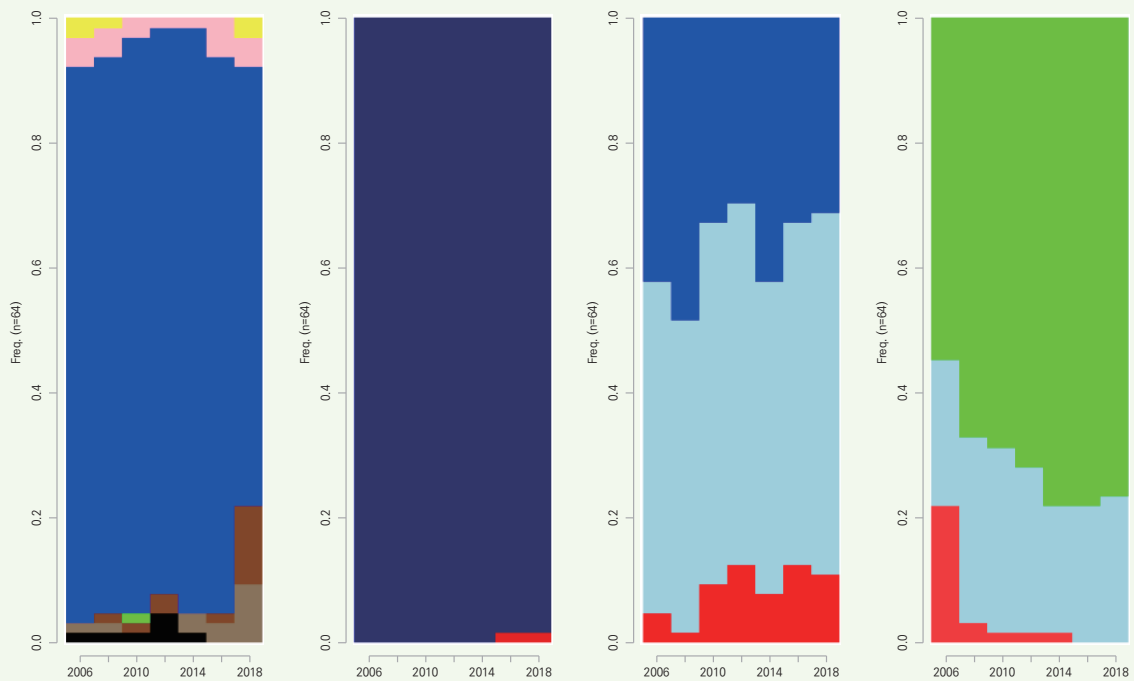
7)

〈표 4〉 기존노인세대 유형별 기술통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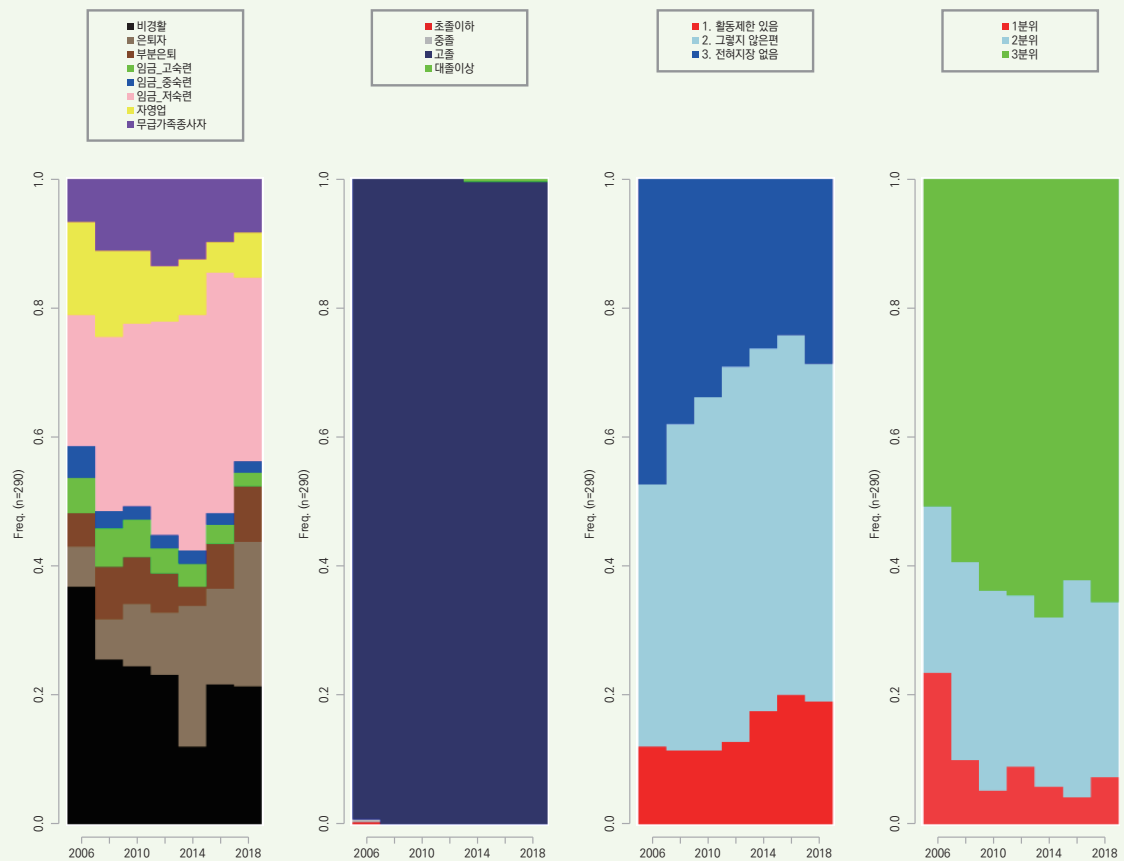
구분	분류	규모	활동제한경험	소득수준		
				하	중	상
1	(최상위집단)고숙련-대졸-고소득	10.0	15.7	10.7	26.5	62.8
2	(중위집단)자영업-고졸-중소득	30.8	25.9	14.4	39.0	46.5
3	(취약집단)중숙련-중졸-저소득	24.1	31.5	20.9	44.9	34.3
4	(최취약집단)초졸-활동제한-저소득	35.2	42.6	37.5	42.2	20.4
합계		100.0	32.1	23.7	40.3	36.0

*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 주: 활동제한, 소득분위 비율은 7차 값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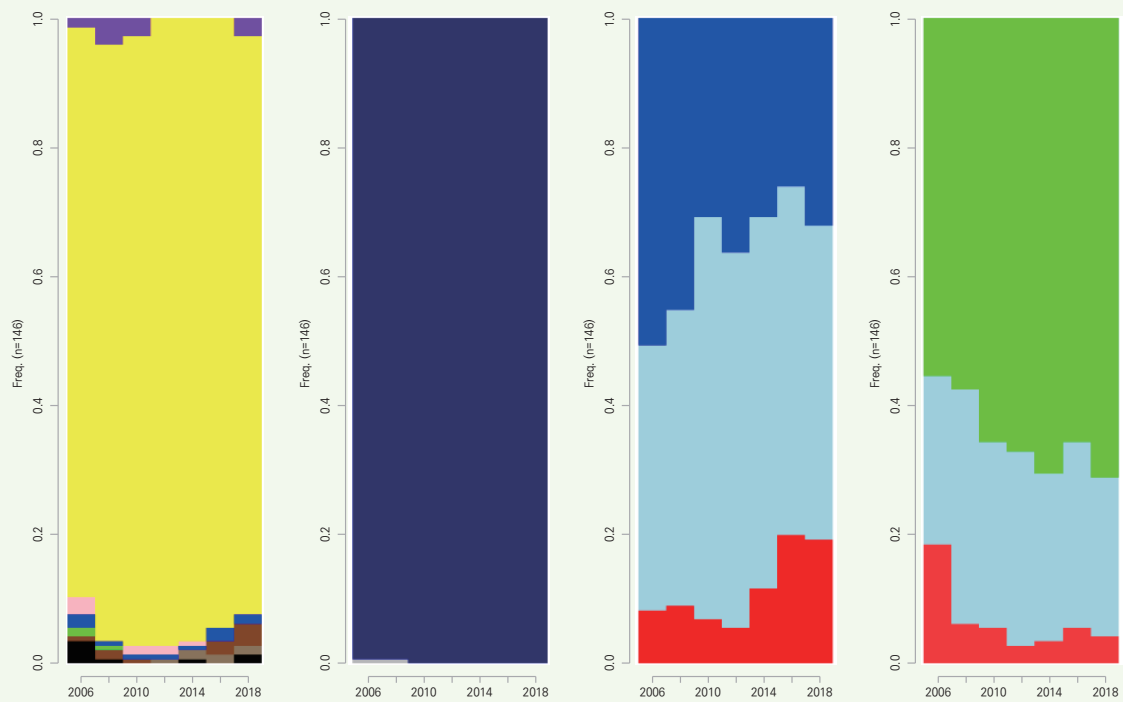
[그림 3] 집단2: (상위집단)중속련-고졸-중상소득 신노년 (6.5%)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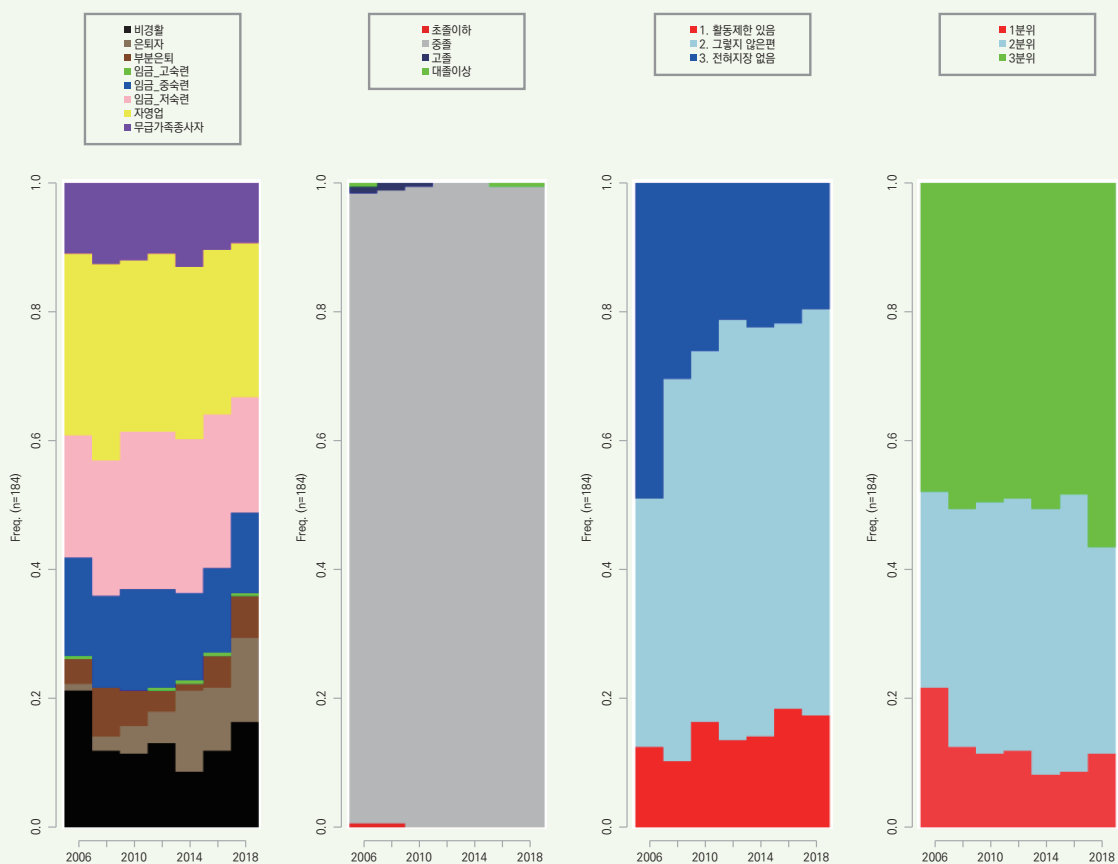
[그림 4] 집단3: (중위집단 I)저속련-고졸-중상소득 신노년 (29.6%)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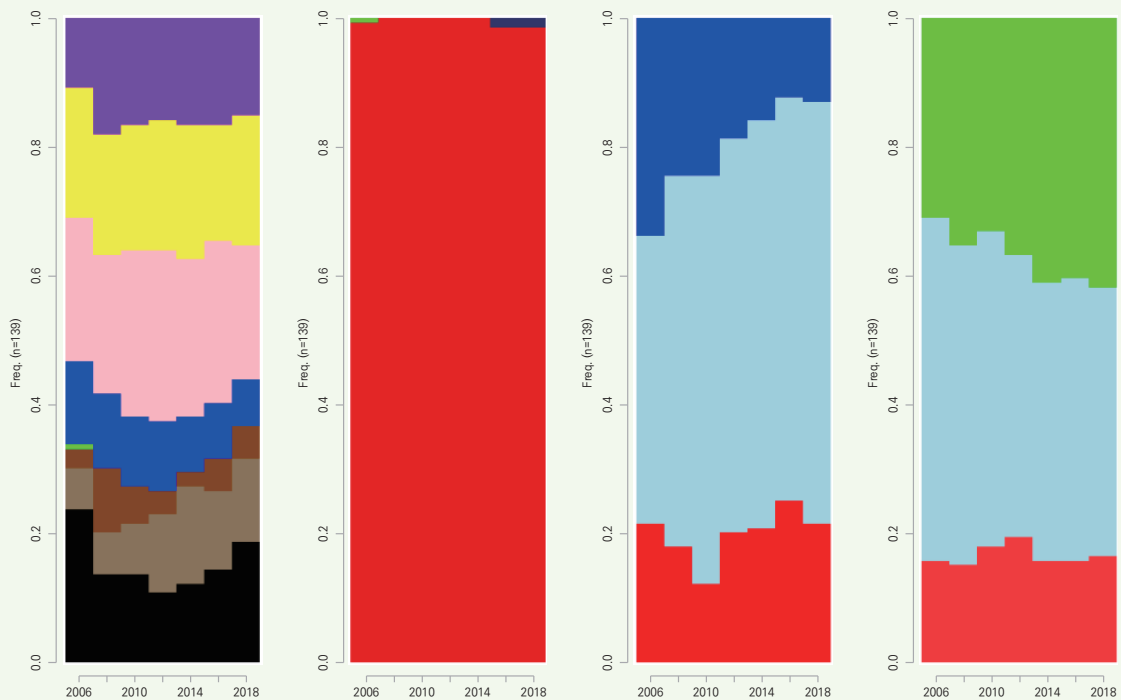
[그림5] 집단4: (중위집단 II)자영업-고졸-중상소득 신노년 (14.9%)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그림 6] 집단 5: (취약집단)저소득-중하소득 신노년 (18.8%)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그림 7] 집단6: (최취약집단)저숙련-초졸-저소득 신노년 (14.2%)

*자료: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 원자료.

5. 결론 및 시사점

- ▷ 본 연구결과에 따라 신노년세대를 하나의 동질된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확인함. 즉, 집단 특성에 따른 직업 지위와 산업, 그리고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노년기 일자리 및 활동욕구 역시 이러한 유형 간(between clusters)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함. 즉, 이들 유형은 생애과정에서 다른 학력수준과 직업궤적을 가졌으며, 건강과 가구소득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다른 활동욕구를 느낄 수 있음. 따라서 이 같은 상이한 특성과 활동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신노년세대의 참여유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지금보다 일자리 종류 및 활동내용을 다양화할 것이 요구됨. 이는 기존 사업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사업유형을 신설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수린, 이철희, 변금선, 이승호, 김혜진, 민진홍 (2019). 신노년세대 노동시장전망과 노인일자리 수요추계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고서.
- 김수린, 배지영, 안서연, 허선영, 김혜인 (2020). 신노년세대를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미간행 보고서
- 안서연, 백학영 (2019).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 연구 :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 정경희 외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부.
-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 (2014).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 현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pp337-369.
- 최웅철 (2018). 미국의 베이비부머(+50)세대를 위한 정책및 사례 연구: 미국의 양코르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국외훈련성과보고서.
- 통계개발원 (2019). 이슈분석2: 고령화와 노년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 2019년 가을호.
-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 통계청.
- OECD (2017[90]), "How technology and globalisation are transforming the labour market",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 Gabadinho, A., Ritschard, G., Mueller, N. S., & Studer, M. (2011). Analyzing and visualizing state sequences in R with TraMine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0(4), 1-3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일로 106

www.kordi.or.kr